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성격 드러내기

대학 입시 과정에서 지원자는 원서를 통해 자신의 학업적 성취와 표준시험 점수, 과외활동 성과 등을 대학에 보여준다.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대학은 이런 수치와 표면적인 것에만 주목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 그리고 지원자의 성격과 개성이 그 대학에 잘 맞을 것인지 보고 싶어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은 지원자의 '성격' (personality)이 원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지원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아직 보편화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성격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에는 주로 3가지가 있다. 바로 인터뷰와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다.

첫째, 인터뷰는 대학의 관계자나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인터뷰어가 지원자를 1대1로 만나거나, 줌 등 화상채팅 방식으로 대화한다. 인터뷰어는 지원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인터뷰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원서에 포함돼 대학이 마지막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에세이다. 지원자의 성격과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에세이다. 입학사정관들은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가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 그리고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생활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펼쳐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추천서다. 추천서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학이 알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어떤 성격적 특징, 인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추천서를 통해 언급한다. 대학은 이를 통해 해당 지원자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지원자의 성격과 인품은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까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대학은 분명히 고려한다. 대학이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캠퍼스에 왔을 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만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 대학의 문화와 잘 맞고, 남들과 두루 잘 어울리며,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은 원한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자. 대학은 단지 특정 타입의 지원자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대학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 (diversity) 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로 신입생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를 대학은 바란다.

특히 내성적인 학생은 에세이가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메인 에세이와 추가 에세이, 그리고 온라인 포트폴리오 등은 직접 타인과 대면해서 1대1로 대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사진=shutterstock

대입 레귤러 원서 제출 후 꼭 해야 할 것들

대학 입학을 위한 레귤러(정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 마감일은 대학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1일에서 15일 사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마감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레귤러 합격자 발표는 대부분 3월 중순에 나온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12학년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에세이를 쓰고, 원서를 작성하고, 재정보조 신청 서류를 점검하는 등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 대학들은 3월 중순 이후 4월 초까지 레귤러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5월 1일까지 등록을 하라는 통보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가 레귤러 원서를 모두 제출한 학생들이 이후 해야 할 것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꼼꼼하게 다시 지원한 대학 리스트를 점검한다. 만일 모두 합격이 어려운 상향 대학만 지원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아직 원서 마감일이 남은 한 두 개 '안정권' 대학을 선정해 지원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모든 지원대학에서 고배를 마시고 내년도 지원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레귤러로 지원을 한 학생들 가운데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Early Decision 2를 활용한다. 만일 지원한 대학들을 모두 레귤러로 넣었는데 불안하다면 그 대학에 연락을 해서 ED2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본다. 물론 해당 대학에 ED2 제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정신적인 휴식도 취해야 한다. 입시로 인한 긴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만큼 휴식이 필요하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다. 잠깐 게으름을 피워 12학년 2학기 성적이 망가진다면 합격한 대학들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는 슬픈 소식을 전달 받을 수도 있다. 대학들은 12학년 2학기 성적표를 요구한다. 얼리에 합격된 학생, 그리고 레귤러 원서를 제출했다고 성적에 소홀히 해서 D, F가 쏟아지면 당연히 합격대학들은 합격을 취소한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서를 모두 넣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학비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정보조/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Need based Grant 외에 각 대학이 제공하는 Merit Scholarship이 있다. 이는 자동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Tuition & Financial aid, Scholarship이란 항목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는 지 꼼꼼히 서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shutterstock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어깨 굳거나 뻐근한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등 척추측만증(Scoliosis) 특수교정(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손목/Carpal Tunnel Syndrome/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다리 좌골 신경통(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무릎통증/발목통증/쥐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 539. 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